

##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서 세 립\*\*

### 요 약

본고에서는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탈북자들의 수는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탈북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증가와 함께, ‘탈북 문학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탈북 문학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와 탈북자의 인권 유린, 여성 문제, 정치범 수용소,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탈북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탈북자와 자본의 문제는 의미 있는 지점이다. 탈북자들을 단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관찰하고 비판하기 위해 기능하는 도구적 존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투입해온 자본의 실체에 접근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탈북해 왔으며, 이것은 체제와 경제 상황 등 거시적인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2000년대 이후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탈북 작가들이 직접 서사화하고 있는 글쓰기 욕망과 자본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유경, 이지명, 도명화, 장해성 등 지속적으로 소설을 발표하며 남한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전까지 주로 한국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한 탈북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본 인식이 남한 사회 비판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대해 주목해왔다면, 탈북 작가가 직접 서사화하고 있는 북한 ‘장마당’ 경제에서부터 탈북 과정의 교환성 인식 및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탐색 등에 대해 살펴보고, 탈북 작가의 글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2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 <작가란 무엇인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광운대학교 강사

쓰기와 시장성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는 과정이 자주 나타난다. 이때 장마당의 형성은 체제의 통제력에 균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그것은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와 동시에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경제의 양상은 강력한 독재 체제 속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의 지점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비판 행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인의 반성적 성찰이 수반된다. 탈북 작가들의 글쓰기는 정치적, 이념적 논란의 대상인 북한이라는 체제의 폐쇄성을 다루면서 탈북자로서의 진실성과 정치적 소명의식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빈곤을 벗어나 이주한 한 개인으로서의 인식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층위가 단순하지 않다.

북한 체제 내부에 대한 비판이나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형상화와 함께 탈북 이후의 삶과 적응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탈북자들의 형상화는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재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새로운 창조적 유목민으로 기능하며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상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탈북 작가, 자본, 장마당, 비판,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해성, 이志明, 김유경

## 목차

1. 서론
2. 장마당의 교환경제와 자본 축적의 딜레마
3. 비판 행위의 구성과 시장성
4.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재탄생과 상생(相生)의 노마드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나는 탈북 이전 북한의 현실에서부터 탈북의 요인과 과정, 탈북 이후의 삶을 연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탈북 행위와 자본의 영향 관계 및 그에 대한 탈북자로서의 인식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탈북자들의 수는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귀순 용사’ 등으로 불리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특수하고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나, 탈북자 증가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이제 그들은 특별한 정치성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sup> 남한 사회에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동화와 경계 사이에 놓인 새로운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2000년대 들어 탈북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증가와 함께 탈북과 관련한 문학적 성과, 즉 ‘탈북 문학’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sup>2)</sup> 탈북 행위 및 탈북자들을 주요 대상과 주제로 탈

1) 우리나라에서 탈북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 이후 1993년 이전까지는 이들을 대개 귀순자, 귀순용사라 칭했다. 귀순(歸順)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귀순자 대신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는 2003년에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등재되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새터민이라는 순우리말로 쓰기도 한다. ‘귀순자’라는 용어에는 정치적 관점이, ‘탈북자’라는 용어에는 정치성을 탈피한 객관적 시각이 의도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박덕규·이성희, 『민족의 특수한 경험에서 전지구의 미래를 위한 포용으로』,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14면.)

2) 1995년을 전후하여 진행된 ‘고난의 행군’이 초래한 북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불안이 탈북자 양산 및 탈북 문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음은 여

북자들의 험난한 탈북 과정과 중국 등지에서 고통스러운 유랑, 이후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을 비판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여러 차례 생산되었고, 탈북자 출신 작가 스스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전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작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및 정권 상황 고발,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 등을 주요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문인들은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조선작가동맹 출신으로서 한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지명, 장진성, 김유경, 최진이 등이 있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은 강렬한 체험을 기반으로 탈북 전후의 특별한 기억의 형상화와 증언에 대한 욕망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함께 탈북 문학에 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탈북 문학의 개념과 범주, 전개 양상에 대한 고찰을 비롯하여,<sup>3)</sup> 탈북자 소재 한국 작가의 소설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up>4)</sup> 남한

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 대량 탈북을 그려낸 일련의 소설들이 기존의 분단문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탈북 문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90면.)

3) 박덕규, 위의 글, 89-113면.

4)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북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215-245면.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26-152면.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면.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면.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면.

작가와 탈북 작가,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sup>5)</sup>, 탈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sup>6)</sup> 탈북 문학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와 탈북자의 인권 유린, 여성 문제, 정치범 수용소,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탈북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주제의식들을 보여준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민족, 분단 현실, 국제법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각들은 현재 대한민국 분단 현실의 특수성과 소수자 인권 문제라는 보편성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sup>7)</sup>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탈북자와 자본의 문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와 관련, 1990년대부터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한 박덕규의 작품을 통해 탈북자들이 겪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이질감과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분석되었고,<sup>8)</sup> 권리, 강희진의 소설을 중심으

5)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면.

6)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291-310면.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면.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면.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면.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면.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혜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517-542면.

7)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71-272면.

8)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261-288면.

로 역시 자본주의의 모순과 탈북자 현실 적응의 문제들이 논의된 바 있다.<sup>9)</sup> 또한 강영숙, 황석영, 정도상, 이대환 등의 작품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문화와 제3세계 난민의 지속적인 디아스포라 상황이 탐구되었다.<sup>10)</sup> 이들은 한국의 기성 작가가 관찰한 탈북자의 모습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단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관찰하고 비판하기 위해 기능하는 도구적 존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대기근으로 인해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투입해온 자본의 실체에 맨몸으로 맞부딪힌 경험과 기억을 갖고 탈북해 왔다. 이것은 체제 현실과 경제 상황 등 거시적인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에 해당한다. 이를 참고하며 본고에서는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2000년대 이후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탈북 작가들이 직접 서사화하고 있는 글쓰기 욕망과 자본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유경, 이지명, 장해성, 도명학 등 지속적으로 소설 작품을 발표하며 남한에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전까지 주로 한국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한 탈북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본 인식이 남한 사회 비판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대해 주목해왔다면, 탈북 작가가 직접 서사화하고 있는 북한 장마당 경제에서부터 탈북 과정의 교환성 인식 및 남한(혹은 타국)에서의 자본주의 탐색 등에 대해 살펴보고,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시장성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탈북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자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탈북자들과의 접점에서 발견할

9) 김인경, 앞의 글, 267-293면.

10)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환경』 제10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1, 235-258면.

수 있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지향점에 대해서도 탐색할 것이다.

## 2. 장마당의 교환경제와 자본 축적의 딜레마

북한 사회의 억압적 현실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사회에 투입하고 있는 자본의 실체와 현실 및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 작가들이 서사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 경제 현실의 모습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에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북한 사회에서도 이미 ‘장마당’을 통해 형성된 교환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애초에 장마당이 형성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체제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느슨해진 틈을 파고든 것인데,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체제의 통제력은 점점 더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또한 그곳에서도 소수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가 장마당을 지배한다.<sup>11)</sup>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11)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년 간격으로 실시한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성분에 따라 식량권 부여의 감소 혹은 증가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은 3계층 51개 부류에 기초한 계급차별정책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식량권 부여의 감소’는 결국 북한 사회 내부 뿌리 깊은 계급차별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식량난과 북한 주민의 고통에 있어 특히 북한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은 장마당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당 간부의 가족들이 사실상 장마당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증언된다. (허만호, 『북한 인권 이야기-현안과 국제적 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32-33면 참조.)

벌어야 할 것인가를 미처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굶주림의 극한 고통을 느끼거나 어떻게든 교환의 과정에 끼어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도 한다.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서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적 공간으로 빈번히 제시된다. 장마당의 경제 활동은 주민들의 생계를 보전해주지만 동시에 갖가지 형태의 고통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때 장마당의 경제 활동은 사실상 생산의 증가가 아닌 교환의 확대를 통해 초과 가치를 창출하고 외부 자본에 접촉하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호구지책은 경제난의 본질적 해결과는 무관하지만, 장마당은 북한 사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장마당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 꽃제비나 거지 등은 과거에는 겪지 않아도 되었던 여러 고난의 지표로 여겨지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사고방식 자체를 변환시킨 계기로 기능한 것이다.

“나 오늘에야 김정일이의 덕을 내가 봅니다.”

“그래 왜요?”

“거기 닭이 피이(닭 모이)처럼 그냥 쫓으면, 나 지금도 안 오고 그기 세상 단가 싶어 앉아 있았는데, 닭이 피이처럼 주는 거도 안 주니까, 오늘 보라! 나 오늘 같은 날 세상을 내가 다 보지 않냐?”<sup>13)</sup>

탈북자 구술 연구를 위한 대담에 응한 위의 탈북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무너진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북한 주민이 나라에서 공급되지 않는 물자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거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그렇듯 스스로 ‘시장’을 만들

12) 이지은, 앞의 글, 528면.

13) 김종균·정진아,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260면.



어 물품을 거래하게 되니 배급 시절에는 아예 상품이 없어서 물품을 구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물품을 거래하게 되어 필요한 상품의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sup>14)</sup> 궁핍한 곤경 속에서도 오히려 '시장'이 그러한 곤경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 사회적 현실의 자리를 장마당이 대신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된 것이다. 견고하고 억압적인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북한 사회에 장마당이야말로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 것으로, 장마당을 통해 투입하는 자본의 흐름은 주민들이 억압과 통제 이외의 것을 삶에 들여놓게 하는 계기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장마당 교환경제의 단면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이지명의 단편 『금덩이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투입 과정이 우화적으로 제시된다. 국보급 문화재 절도 사건에 얽혀 관리소(수용소)에 잡혀온 영수는 그곳에서 윤철보 영감을 만난다. 가난한 시골 농부 윤철보 영감 역시,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 전체가 극한의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강냉이 몇 알을 훔치다 잡혀온 신세이다. 병에 걸린 윤철보 영감은 죽기 전 영수에게, 자신의 집 부엌 밑에 금덩이를 숨겨놓았으니 퇴소하게 되면 자신의 고향집에 찾아가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 영감이 죽은 후 영수는 영감의 고향집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영감의 가족들도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sup>15)</sup> 애초에 관리소에 수감된 등장인물들의 모든 죄목이 경제사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의 연원과 종말이 경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탈북 작가 설송아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장마당 교환경제와 자본

14) 위의 책, 146면.

15)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이경자 외, 『금덩이 이야기』, 예옥, 2017, 99-125면.

의 투입 과정이 성적 일탈 행위와 함께 상당히 극단적으로 제시된다. 단편 「진옥이」에서 젊고 순진한 처녀였던 진옥이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점차 성(性)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익숙해져간다. 급기야 그녀는 임신 후 8개월이나 지난 아이를 낙태로 없애 버린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출산이 임박해오는 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강제로 아이를 사산시키는 진옥이의 모습이 북한 사회의 현실에서는 이제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작가는 담담하게 서술한다.<sup>16)</sup> 윤리 의식조차 돈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특수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인물들이 극단적으로 돈에 대한 집착과 일탈로 이어지는 것은 통제 구조의 균열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에서 주인공 창수와 이웃집 과부 금옥의 합작으로 탄생한 돈벌이의 모습도 장마당이라는 공간이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명학의 다른 단편 「책 도둑」에서는 그러한 장마당의 구조와 지식인의 환멸이 맞물려 묘사된다. 작가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 작가동맹위원장은 여전히 책을 애지중지하며 숨겨놓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끼던 책을 몽땅 도둑맞는 일이 벌어지고, 위원장은 앓아눕는다. 작가 동맹 소속 작가인 나와 친구는 딱한 위원장을 위해 책 도둑을 찾아 나서는데, 도둑은 결국 위원장의 부인으로 밝혀진다. 생활고 때문에 책을 남편 몰래 팔아넘긴 것이다.<sup>17)</sup> 글쟁이, 즉 작가는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이념도 낭만도

16) 설송아, 「진옥이」, 윤후명 외,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옥, 2015, 221-250면.

17) 도명학, 「책 도둑」, 윤후명 외, 위의 책, 157-180면.

찾기 힘든 시대에 ‘책’으로 상징되는 작가의 자부심마저 장마당에 내다팔아 버리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자연스러운 틈입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동시에 이곳이 일종의 ‘광장’으로, 인간들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sup>18)</sup> 구조적 폭력에 대한 철저한 타자화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정권의 통제력이 틈을 보이게 되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다. 이지명은 장편 『삶은 어디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실에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는 개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오빠. 꼭 이렇게 살아야만 이 세월을 이겨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힘을 합치면 아무려면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바보같은 소리, 어느 누군들 그런 생각 못해 봤겠어. 신미 눈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보여? 천만에, 그 중엔 자기들이 이제 곧 먹지 못해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지금 먹는 걱정 별로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구. 할 일을 놓치면 죽는 게야. 지금 어디 돈 나올 곳이 있겠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일만 하면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야. 일거리도 없어. 모든 공장이 다 문을 닫고, 무척 힘들어. 모든 것이 죽어간단 말이야. 이런 일이라도 우리 손에 맡겨진 것이 천만다행이야. 복 중의 복이지. 신미,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보라구. 뭐 둘이 힘을 합치면 굶어 죽기야 하겠냐구? 힘이 있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신미에게 가슴 아픈 소릴 쫓 해야겠어. 다른 데 멀리 볼 것도 없이 신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부모님들이 게을러서, 힘을 합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구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sup>19)</sup>

18) 정하늬, 앞의 글, 42면.

배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체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모든 생산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직접 돈 벌이를 마련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은 이 작품 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경제 파탄에서 비롯한 생활고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 소설에서는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국경 시대에서의 아편 밀수로 돈을 버는 주인공들은 얽히고설킨 악연의 끝에 결국 대다수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주체적인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것이라는 다짐을 한다. 그러한 ‘개척’의 과정에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지명의 단편 『북귀』에서는 이렇듯 북한 사회 이중 균열을 초래하는 자본에 의해 오히려 인간성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흥미롭게 제시된다. 평양에서 무역업을 하던 서장우는 가족들과 함께 갑자기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관리소 소장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자신이 숨겨 놓은 30만 달러를 바치는 대신 그곳을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다. 엄격한 정치범 관리소이지만 30만 달러의 힘 앞에서 그 제안은 단번에 수락되고 서장우는 가족들을 피신시킬 수 있게 된다.<sup>20)</sup>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오히려 돈의 힘 앞에서는 이념도 체제도 뒷전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sup>21)</sup> 그러나 그는 미리 돈을 빼돌려 가족들을 중국으로 탈출시키고, 자신들을 버린 국가와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인간’으로 돌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돈 때문에 곤경에 빠진 서장우지만, 결과적으로 돈의 힘을 빌려 가족을 구출하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게 된다. 이렇듯 무비판적 구성원으

19)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24-25면.

20) 이지명, 『북귀』, 『망명북한작가PEN문학』 창간호,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 2013, 217-239면.

21) 정하늬, 앞의 글, 53면.

로 기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국민이,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데에 자본은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또한 새롭게 자본의 흐름을 접해야 하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혼란이나 그 과정에서의 고난은 많은 탈북 작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며, 이러한 자본의 문제가 탈북 작가 스스로의 작가 의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에 대한 인식이 비롯되는 지점 및 그 과정에서의 모순적 현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으로 장해성의 장편 『두만강』을 들 수 있다. 평양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일하던 홍준석은 갑자기 누명을 쓰고 반동죄로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게 된다. 준석의 두 딸 은영과 혜영도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 자강도로 추방당한다. 요덕 15호 관리소로 끌려가던 준석은 열차에서 뜻밖의 사고로 탈출하고, 은영과 혜영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며 고생하다 중국인 왕가의 노림수에 당한 혜영이 결국 1만2천원에 중국 시골에 팔려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가까스로 탈출한 혜영과 가족들은 천신만고 끝에 재회하여 함께 강을 건너며 국경 탈출을 꿈꾸지만 탈출 과정에서 혜영은 목숨을 잃는다. 혜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고난과 개척의 서사에 가장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자본이다. 그런데 이때 특히 혜영의 미모와 몸, 즉 여성의 신체야말로 가장 값있는 교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이 작품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서술된다. 끊임없이 인신매매의 위협에 빠지며 인권의 박탈 및 인간의 사물화를 경험하는 위기에 놓이는 탈북 여성들의 삶에 대해 직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투입은 체제의 균열 지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자본을 매개로 한 교환 과정에 뛰어난 탈북자들에게 있어 그것이 타개의 수단인 동시에 한편으로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삶으로 밀어 넣는 올가미

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두만강』의 혜영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기 시작하며 희망을 꿈꾸었지만, 또한 동시에 장마당에 나서는 순간 두부가 아닌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장마당의 교환 시장에 나서게 되었을 때, 탈북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단지 가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자본의 축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 하에서, 화폐개혁 등과 같은 형태로 언제 불안정한 변화를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본래 한시적으로만 운용될 예정이었던 장마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북한 주민의 시장 활동 추세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 되자, 2009년 12월 북한 당국은 신구권 화폐교환비율을 100대 1로 반영하는 과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와 시장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물가폭등,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의 반발 확대 등의 역효과를 낳으며 북한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자본의 축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교환경제의 양상은 여전히 강력한 독재 체제 속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이다. 장마당을 통해 자본에 접근하게 된 주민들의 삶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그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 혼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적 현실의 모습은 체제의 균열과 자본에 대한 인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게 한다.

22) 천혜정·서여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0권 3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4, 112-113면.

### 3. 비판 행위의 구성과 시장성

북한 사회 내의 억압적 구조는 사회 전체에 학습된 무기력과 폭력의 용인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무비판적 수용자가 된다. 강력한 통제 아래 권력과 체제에 대한 복종의 태도만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가치 판단과 책임보다 무비판과 무책임의 태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당연히 중요한 비판 대상이 된다. 그것이 북한 사회 전체의 본질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계획된 공포 정치가 확립되어 있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정권의 목적은 더욱 강력한 통제에 있으며, 거기에는 폭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집단의 명령 내지는 상부의 명령이라는 것은 북한 사회 전체에 가장 큰 힘을 지니는 것이 되며 조직 내 구성원들이 폭력의 일상화에 노출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진다. 개인들의 세밀한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의 구조는 북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다.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은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으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인간, 정치적 행위로부터의 배제를 노리는 것이다.<sup>23)</sup> 개인이 그것에서 탈주하거나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북한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구조화된 폭력 자체에 비판적 의식을 갖기 어렵고, 모든 비인간적 행위들을 철저히 타자화하는 기계적 삶으로 내몰리게 된다. 정치 행위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각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방관과 무조건적인 복종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일거에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23)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5, 83-99면.

다.<sup>24)</sup>

정치적인 것은 언제나 주체화의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에서는 이렇듯 질문을 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없다. 그러한 억압된 세계를 벗어나 비로소 질문을 제기하는 문학을 맞닥뜨린 탈북 작가들의 입장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탈북자의 정치 인식과 죄책감을 비롯한 복잡한 의식들이 글쓰기에 발현되며 그것이 자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양상이다.

장해성의 단편 『단군릉과 노 교수』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북한의 사정이 학문의 영역에서 제시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부장인 주인공 박상민 교수는 6.25전쟁 전 서울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다가 월북한 인물이다. 어느 날 김일성대 역사학부에 단군릉에 대한 재고증을 실시하라는 김정일의 교시가 내려온다. 196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해 단군릉이 부정되자 모든 연구가 중단되었던 것이지만, 수십 년 만에 다시 김정일에 의해 단군릉 복원이 지시되자 고증이나 검증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위대하신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단군릉은 순식간에 다시 ‘건설’되고, 그 현장에서 학자로서 박상민 교수는 괴로워한다. 진리와 학문의 영역에서조차 진실이나 진리 탐구 대신 오직 수령님의 지시만 따라야 하는 북한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김유경의 장편 『청춘연가』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모습이 제시된다. 주인공 정선화의 아버지 정학민은 대학 교수로 북한 사회에서도 비교적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강냉이 한 알 배급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24)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역, 『죄의 문제』, 앨피, 2014, 90-91면.

25) 장해성, 『단군릉과 노 교수』, 『망명북한작가PEN문학』 창간호,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 2013, 126-142면.



‘김일성의 혁명력사와 당의 정책’을 세상의 유일한 진리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표정이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옥수수쌀 한 자루를 가족에게 남기고 얼마 안 되어 처량하게 저세상으로 갔다. 정학민은 숨을 거두기 전에 딸의 손을 꼭 그러쥐고 겨우 한마디를 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너를 두고 가는구나.”

그때 선회는 처음으로 험악한 세상이라는, 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아버지에게 들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버지는 철저히 영혼을 드러내지 않았다. 딸 앞에서 이 사회에 대해 한 마디의 독설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아버지도 마지막에 깊은 고뇌를 드러내신 것이다. 폭 꺼진 눈구멍에서 사그라져가던 아버지의 서글픈 눈빛을 선회는 기억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허무한 일생이다. 아버지가 유창하게 강의해주어 선회는 김일성의 혁명력사라는 것과 당의 정책이라는 것을 그리도 진실로, 정의로 믿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도 진실로 믿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는지 선회는 지금도 알 수 없다.<sup>26)</sup>

표정이 없는, 영혼 없는 눈빛의 대학 교수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닫힌 구조 그 자체이다. 그곳에서는 제아무리 엘리트라도 스스로의 표정을 가질 수가 없으며, 혈육이지만 각자 진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기 힘들다. 그런 아버지가 죽기 직전 ‘험악한 세상’이라고 북한 사회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정선회에게는 충격적인 일인 것이다.

장해성의 단편 『32년 전과 후』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개인에 대한 또 다른 소고이다. 경선은 최고 대학을 나와 중앙텔레비전 기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사실 전쟁 고아로 젊은 시절 평안남도 회창의 막장에서 고생하다 친구 명수가

26)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74-75면.

무너진 바위에 깔려 죽는 사건을 목격한다. 명수는 하반신이 바위에 깔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당에서 어떻게든 빨리 생산계획을 끝내기 위해 아직 살아있는 명수의 몸을 누르는 바위를 밟아냈으며, 이에 회의를 느낀 경선은 도망치듯 그곳을 떠난다. 32년 만에 출장차 회창을 다시 찾은 그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옛 친구 최호를 찾아간다. 형편없이 초라한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초췌한 삶을 살고 있는 최호는 건디기 어려운 궁핍 속에서도 여전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덕분에 언젠가는 꼭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경선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글에 대해 후회를 느끼게 된다.

경선은 머리를 한 대 되게 얻어맞는 것 같았다. 누구를 닮아. 경선이 자신이 이제까지 썼던 글이 바로 이런 말들이 아니었던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 인민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공화국을 봉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친애하는 지도자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고, 그러면 고난의 행군도 낙원의 행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시도 때도 없이 써대지 않았던가?

물론 경선이 그렇게 쓰고 싶어 쓴 것은 아니었다. 혼자서만 그렇게 쓴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에게 자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경선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절실히 느꼈다. 결국 그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시키는 일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최호까지 이 모양으로 망가트리고 만 것이다.<sup>27)</sup>

글쓰기 행위를 통해 무지한 인민들을 지속적으로 현혹시키고 있

27) 장해성, 『32년 전과 후』, 『망명북한작가PEN문학』 제2호,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 2014, 193-194면.

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지식인 경선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의식 구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닫힌 사회에서 비판 행위를 영위하지 못하던 인물들이 비로소 새로운 시각을 접하는 계기는 탈북 작가의 서사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 행위의 구성 과정에서, 지식인의 침묵이 무기력하게 이어진 모습을 탈북 작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나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그럴 수 있는 의지조차 없었던 점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해성은 장편 『두만강』의 작가의 말을 통해 지식인이자 언론인으로서 북한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북한에서 기자·작가를 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바르대로 말하면 대단한 기자·작가는 아니고 그저 적당히 체 앞가림이나 하던 사람이다. 한때는 군에서 김일성의 경호부대에도 있었고 또 제대 후에는 그곳에서는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대학도 졸업했다. 그리고 기자·작가가 되어 나름대로 북한 당 선전부문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부문에서 어용 나팔수를 했다.

그때 나로서는 북한 체제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체제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길이 곧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길이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다.<sup>28)</sup>

저항과 비판의 어려움과 함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인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체제 안주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탈북 지식인들의 서술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식이나

28) 장해성, 『두만강』, 나남, 2013, 4면.

명예만으로 채우기 어려웠던 비판 행위의 구성 계기에 생활고의 형태로 맞닥뜨리게 된 자본의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특히 과거 귀순용사가 이분법적 대결 구도의 체제에서 명확한 정치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고난의 행군 이후의, 즉 2000년대의 탈북의 현실에서는 일상적 삶에 대한 고민이 훨씬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본의 흐름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북자의 비판 행위 구성과 자본의 결합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상적 삶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 탈주한 개인이지만 또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듯 집단적 속성을 대변할 수 있는 개인일 때, 즉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존재일 때, 그 과정에서 자본의 개입은 이들의 글쓰기에 왜곡이나 과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상업 출판의 메커니즘이나 낮은 존재들에 대한 서구 세계의 상업적 호기심에 부응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이와 관련된다.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탈북 작가들의 사례를 들어, 많은 출판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서 출판된 내용이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경험이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얻어가는 과정의 상호문화적 소산이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sup>29)</sup> 즉 해외의 출판사가 기획한 내용을 탈북자가 증언하고 외국 작가가 집필하는 방식으로 수기 등의 출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언에 임한 탈북자 저자들의 저술은 탈북자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말하기인 동시에 독자의 수요를 예측한 기획자에 의해 선택된 말하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층위가 단순하

29)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228면.

지만은 않다. 또한 탈북 작가들이 직접 서사화한 소설 작품들도 한국에 비해 해외에서 주목받고 더 잘 팔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서구 출판계와 독자들이 북한에 대해 품고 있던 두려움과 궁금증에 동시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이 탈북 작가 및 탈북자 저자들인 만큼,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시장성을 누구보다 명민하게 인지하여 자신의 삶을 상업 자본의 부름에 답하여 이 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왜 쓰는가의 문제와 왜 출판되는가 혹은 왜 증언하는가와 왜 듣는가의 문제가 맞부딪히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덕적 구획과 시장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탈북 작가의 비판 행위와 시장성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비판 행위 및 질문을 제기하는 문학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야 했던 이 작가들에게 이중의 고민을 안겨준다. 체제 비판과 출판 행위의 상업성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탈북 작가들이 내는 목소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부 세계에서 기대하는 탈북자의 소명 및 상업적으로 기대되는 서사와 그들 자신이 내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탈북 작가들의 글쓰기는 정치적, 이념적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북한이라는 폐쇄국가를 주요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탈북자로서의 진실성을 스스로 변론해야 하는 의무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확인, 재발견해내야 한다는 사실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시된다. 또한 엄밀히 말해 그들이 벗어나고 싶은 것은 정치적 억압보다도 빈곤의 문제일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 외의 독자들은 북한의 폐쇄적 억압 구조에 대해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탈북 작가들의 서사의 지향점도 이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빈곤을 벗어나 이주한 한 개인이자 정치적 소명의식을 지닌 탈주자로서

의 의식을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재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 4.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재탄생과 상생(相生)의 노마드

북한 체제 내부에 대한 비판이나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형상화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탈북 이후의 삶과 적응 문제일 것이다. 사실 탈북 작가들이 더욱 변별성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이들이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한 비판적 경계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게 된다.

탈북 이후의 삶에 대하여 가장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는 작품은 김유경의 『청춘연가』이다. 이 작품에서는 선화, 복녀, 경옥, 그리고 성철로 표상되는, 탈북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인물들의 선택의 방향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였으며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던, 그야말로 엘리트 출신인 선화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배급이 끊겨 가난에 허덕이다 아버지를 잃고 병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돈 천 원에 시골 마을 중국인의 집으로 팔려간다. 중국인 남편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학대와 성폭력은 6년간이나 이어졌고 어린 딸을 남겨놓은 채로 그녀는 결국 홀로 탈출한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오랜 트라우마를 간신히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선화와 하나원 동기인 복녀와 경옥의 경우도 비슷하다.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를 당하다 탈출해 들어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꾼다. 꽃제비였던 성철도 마찬가지이다.<sup>30)</sup>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 정선화야말로 탈북자들이 원하는 남한 사

회 안착기의 이상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자가 되어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를 사랑스러워하는 복녀는 남한 남자와의 결혼이 선화의 남한살이에 궁극적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당당한 북한 사투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남한 사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탈북의 여정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녀는 선화가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랐고 능히 그런 자질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앞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되 꼭 남한 남자를, 그것도 자기는 감히 바라보지 못할 그런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자신은 북한 여자임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북한 사투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선화만은 꼭 남한 사람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선화에게는 있어 보였다.

복녀는 그렇게 선화에게서 자기와는 다른 것을 희망했고 그녀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복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녀 역시 남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다.<sup>31)</sup>

북한 사투리와 남한 사람에 대한 동경 사이에서 복녀의 겉모습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삶을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위태로운 저울질의 끝에 결국 '선화만은 꼭 남한 사람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진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화'라고 표현될 때, 그러한 이중적 의식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존 조건에 대한 탈북자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동시에 표출한다.

경육이라는 인물이 드러내는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감응도 주목된다. 기존의 탈북 작가들이 강력한 정치적 비판 의식에

30) 서세립, 앞의 글, 88-89면.

31) 김유경, 앞의 책, 191면.

집중하며 좀처럼 형상화되지 못했던 탈북 이후의 자본주의 동경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식을 기대 받는 탈북자들의 상황에서 탈북 이후의 중요 목적에 자본을 공공연히 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본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에서 평생을 길들여져 온 입장에서,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경옥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발화한다.

“언니, 한국에서는 정말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난요, 이제 나가면 기를 쓰고 돈을 벌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경옥은 제법 확고한 어조로 그동안 기막힌 인생 체험을 통해 얻은 생활관을 피력한다. 경옥은 하나원에서 생활비로 준 4만 원도 한 푼 건드리지 않았다.<sup>32)</sup>

한국에 들어와 가장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옥은 선화와 복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돈이 최고’라는 자신의 새로운 신조를 누구에게나 숨김없이 천명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그녀가 자본을 적대시하는 체제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선택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원만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삶에 온전히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효용(utility) 혹은 자기이익(self-interest)의 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주체, 즉 경제적 인간(economic man)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해도 북한에서는 결코 선취할 수 없었던 삶의 조건이다. 북한 체제에서는 교환의 행위가 통치성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장

32) 김유경, 앞의 책, 32면.



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성의 증진과 합리성의 추구라는 새로운 이념이 통치성을 존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sup>33)</sup> 이것은 탈북자들에게는 본질적인 사고관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으로, 이로 인해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북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야스퍼스가 말하듯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차이를 인식한 연후에야 진실로 대화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으며,<sup>34)</sup> 차이와 불일치는 논쟁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해야 하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sup>35)</sup>

탈북자들은 평생 북한의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짐을 벗지 못한다. 그곳의 삶이 어떤지 잘 알기에 북한의 가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한다. 남한에서 조금만 더 아껴 북에 보내면 그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회령에서 올해에도 배급을 하나도 안 줬다고 하기에 내가 김정일 그 새끼 썩어져야 한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니 잘살면 됐지 우리 장군님은 왜 욕하니? 장군님 욕하지 말라, 하고 오히려 날 나무라더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sup>36)</sup>

위와 같은 상황은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정에 몇 단계의 심리적 장애물이 놓여져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가졌듯이,<sup>37)</sup> 궁핍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그토록 바랐던 일이었으면서

33) 서세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감각과 1960년대의 고현학』, 이승원 외, 『한국 현대문학의 향연』, 역락, 2017, 208-209면 참조.

34) 카를 야스퍼스, 앞의 책, 72면.

35) 콰메 엔터니 에피아,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9, 109면.

36) 김유경, 앞의 책, 205-206면.

37)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22면.

도 가족과 친지를 두고 떠나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두고 온 가족의 현실은 바뀔 수 없고 나의 희생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실질적 상황뿐 아니라 ‘장군님을 욕하지 말아야’ 하는 세계에 남겨진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유경의 『청춘연가』에서도 결국 선화가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탈북인의 입으로 직접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탄생 실패를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만큼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의 재탄생이 힘겨운 것임을 알리는 동시에,<sup>38)</sup> 한국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사회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들의 고난과 도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창조적 노마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근원적 외로움과 이방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소외 및 미래의 불안 등 실존적 불안정성을 모두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 탈북자들을 단지 문젯거리로만 보는 것, 즉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비지원이냐의 여부 혹은 이득이나 손해냐의 여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주민 모두에게 상호 교류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생(相生)’의 존재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 역동적 변화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한국 사회의 구

38) 실제로 탈북자들은 고실업과 저고용, 높은 비경제활동, 저임금, 잦은 이직과 고용불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필품도 배급제로 시행되는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그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즉,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그들의 어려움인 것이다. (천혜정·서여주, 앞의 글, 111면)

39) 엄태완, 『디아스포라와 노마드를 넘어』, 경남대학교출판부, 2016, 34-97면.

성원들에게 상생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도전적 삶의 자세로 한계를 넘어온 그들의 타자적 삶을 통해 열린 세상에 대한 지향과 추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경계에서 사유하는 노마드로서<sup>40)</sup>, 주변과 중심의 모호함을 동시에 인식하며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양태 중 하나로, 기존 구성원들의 평면적 사유를 넘어서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상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에서 고통의 증언뿐만 아니라, 입체적 타자성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 수 있다. 이는 분단 현실의 문학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탈북자의 글쓰기 과정이 자본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유경, 이지명, 장해성, 도명학 등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남한에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2000년대 이후 소설에 나타난 글쓰기 욕망과 자본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한국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와 자본의 문제를 통해 남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본고에서는 탈북 작가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지점을 탐색하였다. 탈북 작가가 서술하고 있는 북한 장마당 경제와 탈북 과정에서의 교환성 인식,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주

40) 엄태완,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연구』 8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6-37면.

의 탐색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탈북자의 비판적 정치의식 및 죄책감 등의 다양한 양상이 자본과 연관되어 글쓰기에 나타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탈북자들을 단지 남한 사회의 모순을 관찰하고 비판하기 위해 기능하는 도구적 존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들이 계획 경제와 억압적 독재 체제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체제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존재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체제와 경제 상황 등 거시적인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로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는 과정이 자주 나타난다. 장마당의 형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체제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틈을 파고든 것인데,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체제의 통제력은 점점 더 균열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한 균열의 과정은 각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때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경제의 양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본의 축적 문제뿐만 아니라 강력한 독재 체제 속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의 지점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비판 행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닫힌 사회에서 비판 행위를 영위하지 못하던 인물들이 비로소 새로운 시각을 접하는 계기는 탈북 작가의 서사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북한 사회의 인식 변화나 인권 개선을 위한 비판적 시도를 행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나타난 것이다. 탈북 작가들의 글쓰기는 정치적, 이념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폐쇄성을 다루면

서 탈북자로서의 진실성과 정치적 소명의식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벗어나 이주한 한 개인으로서의 인식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층위가 단순하지 않다.

북한 체제 내부에 대한 비판이나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형상화와 함께 탈북 이후의 삶과 적응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탈북자들의 형상화는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재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들의 고난과 도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그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창조적 유목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상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윤후명 외,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옥, 2015.  
 이경자 외, 『금덩이 이야기』, 예옥, 2017.  
 장해성, 『두만강』, 나남, 2013.  
 『망명북한작가PEN문학』

### 2. 논문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215-245면.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 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291-310면.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면.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면.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67-293면.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26-152면.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면.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9-113면.

-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면.
-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면.
- 엄태완,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연구』 8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7-42면.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261-288면.
-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면.
-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217-243면.
- 이지은, 「‘교화’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517-542면.
-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면.
- 천혜정·서여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0권 3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4, 109-135면.
-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면.

### 3. 단행본

- 김중군, 정진아,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 박덕규·이성희,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 엄태완, 『디아스포라와 노마드를 넘어』, 경남대학교출판부, 2016.
- 이승원 외, 『한국 현대문학의 향연』, 역락, 2017.
- 허만호, 『북한 인권 이야기-현안과 국제적 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역, 『죄의 문제』, 알피, 2014.  
과메 앤터니 애피아,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9.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5.



<Abstract>

## North Korean Defectors' Writing and Related Issues of Capitalism

Seo, Se-Rim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trend of writing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lated issues of capitalism. The number of defectors surged as North Korea went through the so-called period of 'Arduous March' in the mid-1990s. Then as social discourses on North Korean defection became widespread in the 2000s, growing attention was given to defector literature. Books written by South Korean writers featuring North Korean defectors were published,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mselves produced writing of various genres. Their writing materialized unusual experiences of defectors and showed their desire for testimony. North Korean defectors are entangled in a complex web of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ethnicity, division of the country, and international laws, and perspectives on these issues are an important matter of dialectics that combines peculiarity of a divided country with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for a small group of the opp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capitalism is particularly pronounced. We cannot see defectors merely as an instrument to observe and criticiz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article, we examined North Korean

defectors' desire for writing and related issues of capitalism, based on novels written by defectors since 2000. Specifically, we focused on writers who have been active and publishing steadily, including Kim Yu-gyeong, Lee Ji-myeong, Do Myeoung-hak, and Jang Hae-seong. In the past, emphasis has been given to how North Korean defectors were described in novels written by South Korean writers, and how their perception of capitalism led to criticism of South Korean society. In comparison, we examined North Korea's Jangmadang(Unofficial market) economy as described by defectors, their perception of interchangeability in the cours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their exploration of capitalism in South Korean society; we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writing and its marketability.

Description of defectors' struggle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reveals the difficulty of being reborn into a capitalistic society as *Homo Economicus*. It could also affect thinking of the public of South Korean society. Defectors reveal themselves as 'different' beings in South Korean society, positioning them creative nomads, and such existence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co-mingling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Defected writer, Capital, Jangmadang(Unofficial market), Criticism, Homo economicus, Chang Hae-seong, Lee Ji-myeong, Kim Yu-gyeong

투 고 일 : 2017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5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